메트로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구하라·용준형 애정 인증샷

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제2639호 www.metroseoul.co.kr

1월10일 10시 전기 끊긴다

'일단 써보고 사는' 공짜마케팅 붐

아파트 2년 살다 마음에 안들면 이사가도 되고 오피스 프로그램 석달 사용후 안사도 되는 등 기업들 '꽉 닫힌 고객 지갑열기' 아이디어 속출

새신랑 이진혁(33)씨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공짜로 입주했다. 분양가의 20%인 계약금만 내면 2년간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금을 받고 나올 수 있다. 건설사 측이 미분양 처리가 어려워지자 2년간 '공짜로' 새 아파트를 내주는 '애프터리빙'이라는 신종 마케팅을 도입한 것이다. 2년 뒤 집을 사지 않아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하고 남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씨는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 단지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데다 2년간 미리 살아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며 신혼 보금자리에 대해 만족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이 공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일단 무료로 써본 다음 마음에 들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애프터리빙으로 재미를 본 GS건설은 일산자이에 이어 마수자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이에 두산·롯데 등 경쟁사들도 '저스트 리브' '리스크 프리' 등의 이름만 다른 공짜 마케팅을 내세워 고객몰이를 하고 있다.

IT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클라우드 오피스 프로그램인 '오피스 365'를 90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내년 2월까지 한다.

새 제품은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쓸 수 있어 장소나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조금은 낯선 영역을 체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꺼려했다.

석 달간 공짜로 서비스하는 게 당장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지만 고객에게 제품을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올 초 현대차는 미국에서 고객이 실직한 경우 차를 되사주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고객 대신 기름값을 대주는 '어슈어런스 가스락' 등의 공짜 프로그램으로 일약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렇다 보니 학원, 카페, 헬스클럽 등 주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체들도 '공짜로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식의 마케팅을 앞다퉈 하고 있다.

하지만 공짜 마케팅 이면에 있는 함수를 주의해야 한다. 단가가 큰 상품일수록 한 번 발을 들이면 빼기가 쉽지 않다.

'애프터리빙' 아파트만 해도 거래가 뜸한 중대형이 많아 향후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하락할 수 있다. 아울러 2년 뒤 집을 사지 않으면 건설사가 내줬던 무이자와 일종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일 1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든다.

/박성훈기자

소망 적어 하늘로 — 새해 첫날 구름사이로 해돋이 본다 27일 서울 강남대로에 설치된 소원공에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고 있다. 강남구는 이 소원공을 오는 31일 하늘로 띄워 보내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첫날 아침 또는 해돋이는 흐리더라도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은 눈 소식이 있다. /연합뉴스

박칼린·인요한·윤상규… 朴의 철통보안·깜짝발탁 2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前 헌재소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수장급으로 상징적 인수위원장과 실무형 부위원장의 조합을 선택했다.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으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 인요한 연세대 교수, 윤주경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을 발탁했다.

청년특별위원회에는 김상민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목했다.

위원으로는 박칼린 킥 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을 비롯해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모선향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채널A 기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인수위 인선을 통해 '철통보안' '깜짝 발탁' 등으로 요약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또 한 번 드러났다.

박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 인선 명단을 비공개에 부치는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윤 대변인조차 "발표하기 전까지 명단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명단을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봉투를 회견장에서 개봉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의 명단과 직책, 전직, 인선 배경이 적힌 A4용지 3장을 차근히 읽었다.

박 당선인의 깜짝 인사도 이어졌다. 선대위에서 활동한 인 교수는 의외라는 평이다. 또한 박 예술감독과 윤 대표이사, 이 기자 등의 임명은 예상에서 벗어난 인사로 평가된다.

한편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3시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김학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회견을 하고 있다.

1월10일 10시 전기 끊긴다

20분간 정전 대비 훈련

새해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전 국민 대상 겨울철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겨울철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체계 정비와 정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달 10일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이 시작되면 가정에서는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상가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사업체는 공장 내부의 조명을 최소화하고, 사무실은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원을 일시 차단하는 등 분야별 행동 요령에 따라 참여하면 된다.

훈련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는 경보가 10분마다 '준비'→'관심'→'주의' 단계로 차츰 높아지며 예비전력이 500만㎾에서 300만㎾로 하락할 때의 상황에 대비한다. 10시부터 예비전력이 200만㎾로 떨어지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서 20분간 공공기관의 의무 단전이 시작되고 국민들은 절전에 참여하면 된다. 10시10분부터 10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세종=유기숙 eleven@

암환자 절반 '10년 거뜬'

5년 이상 생존율도 64%… 52명중 1명꼴 발병해 환자 100만명 시대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36.4%이며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4%는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7일 발표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0년 사이 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한 암유병자(치료 중인 암환자와 완치된 환자)는 96만654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명당 1명꼴로 암유병자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4%로 나타났다.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7.6%),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3.3%)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암 검진 보편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같은 기간 암 발생 증가율은 연평균 3.5%로 여성(5.6%)의 증가율이 남성(1.6%)보다 더 높았다.

2006~2010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4.1%로 최초 암 진단 이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1~2005년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은 49.4%로 꾸준히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게 자주 생기는 암은 위암(19.6%), 대장암(15.2%), 폐암(14.2%)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30.1%), 유방암(14.3%), 대장암(10.3%)의 발병률이 높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암유병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완치된 암 경험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조금은 무섭지만 2013 계사년 뱀띠 해를 맞아 서울 신당동 곤충·파충류 생태 체험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뱀을 보고 만지며 생태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잡는 인터넷 건강식품

인터넷 건강식품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와 동물용 약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28건의 건강기능식품류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유해 성분 제품 가운데 5건은 성기능 개선을 이유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인 이카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용 마취 회복제인 요힘빈 성분이 검출된 제품도 1건 발견됐다. /장윤희기자

새해계획 미리미리 27일 서울 한강로동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2013년 다이어리를 선보이고 있다. 2013년은 공휴일이 큰 115일에 징검다리 휴일도 4번이나 된다. /연합뉴스

3000명 넘게 전자발찌 찬다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조항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거나 이미 출소한 자라도 성폭력의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2010년 7월 16일 시행됐지만 그해 8월25일 청주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 교정과 재범 방지,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2000여 명이 추가로 소급부착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67~3663명가량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박동호기자

광주 무등산 21번째 국립공원 지정

광주의 명산 무등산(사진)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7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확정했다.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은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 이후 24년 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등산에는 수달과 독수리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8종과 팔색조 등 천연기념물 8종이 사는 등 자연 자원 가치가 뛰어나다"면서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 관리 예산은 현재 2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어나며 등산로 정비와 탐방 안내, 방제 작업 등 연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23> 글·그림 박상철

뢴트겐, X선에 대한 논문 발표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은 검은 종이로 감싼 크룩스관으로 방전 실험을 하던 중 기존의 음극선보다 훨씬 큰 투과력을 지닌 방사선의 존재를 확인, 이를 'X선'이라 명명했다. 뢴트겐은 1895년 오늘, '새로운 종류의 광선에 관해서'란 논문으로 발표했고 독일 물리학회 50주년 기념 만찬 석상에서 전 독일 과학자들에게 알리면서 일약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됐다. 그는 이 업적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Wilhelm Roentgen (1845~1923)

안전부문은 오히려 악화… 여자들 살기 더 무서워진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겨우 63점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의사결정과 안전 부문의 성평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63.5점으로 전년(63.2점)보다 0.3점 오르는 데 그쳤다.

국가성평등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과 의사결정, 가족 부문의 평등 정도가 특히 저조했다.

의사 결정 부문이 1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전 부문 평등지수는 53.0점으로 전년보다 악화됐다. 가족 부문도 60.4점에 그쳤다.

반면 보건 부문은 지난해 91.2점까지 상승해 평등도가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뒤를 이어 교육·직업 훈련(78.1점), 문화·정보(73.6점), 경제활동(69.4점), 복지(68.4점) 순이었다.

2005년 이후 6년간 개선 정도가 가장 높았던 부문은 교육·직업 훈련으로 16점 상승했다. 이에 반해 안전 부문은 6년간 59.2점에서 6.2점 추락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38.9%로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박동조기자 alavan@metroseoul.co.kr

우리가 국군 최고의 요리사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열린 '찾아라! 군대 최고의 요리사' 최종 결선 대회에서 우승한 육군 31사단 '최정식의 탐의 한 끼'가 해병대 1사단 '마린셰프'팀과 요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가장 비싼상가 올해도 청평화시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가 점기는 서울 신당동에 있는 청평화시장이었다. ㎡당 기준 시가가 1509만9000원으로 매겨졌다. 오피스텔로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피엔폴루스가 ㎡당 499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27일 국세청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1월 1일부터 적용)를 보면 상업용 건물의 고시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16% 내리고, 오피스텔은 3.17% 올랐다. 지역별로 상업용 건물은 대구(1.52%), 울산(0.97%) 등 일부 지방광역시가 상승하고, 서울(-0.45%) 등 수도권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김지성기자

연재와의 세가지 약속 꼭!

'녹색 식생활' 캠페인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기
우리 전통 밥상 즐겨먹기
하루 한끼 가족과 밥먹기**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와 함께 영양과 환경 모두 챙기는 녹색 식생활 초록입술 캠페인에 동참하자.

녹색 식생활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며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친환경 식생활을 뜻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7일 발표한 초록입술 캠페인 3대 과제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우수 농산물 이용하기다. 장을 보러 가기 전 그린밥상 홈페이지(www.greenbobsang.co.kr)에서 농식품국가인증제도를 미리 확인하면 손쉽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 밥상 즐겨 먹기다. 밥과 채소, 발효음식 위주의 전통 식단은 필요 에너지와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제공하는 영양 만점 상차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실천으로 가족애를 만끽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고 차근차근 실천하면 건강과 가족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1월 6일까지 녹색 식생활 초록입술 페이스북에서 홍보대사 손연재 선수의 농업인 응원 영상을 감상한 후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 식생활 캠페인 블로그(blog.naver.com/greentable1)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greentable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예산 절벽' 향해 가는 여야

'박근혜 예산' 놓고 대치…31일 통과 안되면 준예산 편성 초유 사태

여야가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나흘 앞둔 27일까지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가 3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기본적인 지출만 할 수 있는 준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됐는데 민주통합당이 또 다른 구실을 삼아 부자증세를 더 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야당이 몇 달간은 지켜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초반부터 계속 발목을 잡고 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을 위해 국채 발행 카드를 내놨다.

말 만 통하는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오른쪽)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왼쪽)이 2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여야간사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문제의 발단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말한 6조원 국채 '발행'이라며 국채 발행은 빚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맞섰다.

또 "최근 2~3일 사이 정부 여당이 국채 발행·예산 삭감·지출 증액 등 규모에 대해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이례적인 현상 때문에 예산안 처리 문제가 교착과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만약 예산안·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헌재, 곽노현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김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충혁
광고국장 직대 김판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82

행복한 학교
방과 후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학생들과
가르칠 기회가 필요한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
행복도시락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회적기업 –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SK의 새로운 길입니다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나누듯
더불어 함께 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SK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은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SK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OK! SK
행복나래
행복나래
SK는 KAIST와 함께 국내 최초로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하고, SK 임직원의 프로보노(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K 해피스쿨에서 미래의 요리사, 뮤지컬배우, 자동차전문가를 찾습니다
1년간의 무상교육과 실전체험! SK해피스쿨에서 드리는 전문직업 교육의 기회!
SK해피쿠킹스쿨 SK해피뮤지컬스쿨 SK해피카스쿨에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www.skhappyschool.com을 참고하세요
행복나눔재단

세계일류상품 634개 8대 무역강국 이끈다

64%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서비스산업서도 발굴 노력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상품 중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이 약진하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세계일류상품의 품목은 모두 634개로 이 중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이 64%를 차지했다.

세계일류상품은 지난해 541개에서 올해 93개 품목이 더 늘었다.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60개사가 신규 선정돼 710개사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품목은 지난해 131개에서 12개 늘어 143개였다.

지식경제부는 2001년부터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및 미래 수출 동력 확충을 목표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을 벌여왔다. 해마다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세계일류상품과 앞으로 5년 이내 진입이 가능한 품목인 차세대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상품 개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사상 처음 세계 8번째 무역대국에 올라서게 됐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상품과 기업, 안정된 정책 지원이 경제위기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왼쪽 에서 1번째)이 10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마친 뒤 우수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제공

올해 지식경제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계일류상품을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했다. '201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서비스산업의 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준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내수지향적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가 브랜드 지원과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늘봄기자

메트로신문 '음주폐해 예방' 감사패

파랑새포럼 연찬회 열려

파랑새포럼(사무국 대한보건협회)이 27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연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참여 단체 간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임국환 파랑새포럼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김광기 파랑새포럼 실무위원장의 행사 결과 보고 및 평가 시간이 있었다.

또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메트로신문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조선일보사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학석기자

…하반기 HRD Korea 청렴…

2012. 12. 27(목) 한국산…

산업인력공단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가운데)은 27일 공단 본부에서 강성률(광주교육대학교 교수·오른쪽 둘째) 옴부즈만 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ISO 26000 도입과 공직자의 윤리성 강화 시스템 도입 등 의 보완도입을 위한 옴부 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31일 밤 보신각 주변 교통통제

올해의 마지막 밤에도 보신각 '제야의 종'이 울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등 시민 대표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종로 보신각에서 새해 타종 행사를 갖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보신각 주변의 종로길, 청계천로, 무교로, 우정국로 양방향 전 차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을 가져갈 경우 의주로, 흥인문로, 을지로, 율곡로 등에서 미리 우회해야 한다.

시는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트위터 새해 소망을 받아 특설 대형 전광판에 송출할 예정이다. 타종 행사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역사문화재과(02-2171-2587)로 하면 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olombia

8 Récords más impactantes de 2012

metro Chile

Bombero muere tras lanzarse de su paracaídas

산타옷 입고 고공 다이빙 추락사

한 소방관이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고공 다이빙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메트로 산티아고에 따르면 소방관인 에두아르도 발레라는 고공 다이빙 도중 낙하산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아 사망했다. 발레라는 소방관 가족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의 일환으로 고공다이빙을 시도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HongKong

中 타일공장에 '싱크홀' 혼비백산

중국 충칭시의 한 타일 공장에 21일 10㎡ 넓이의 '싱크홀(sinkhole)'이 생겼다. 직원들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건물 벽에는 균열이 나타났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땅이 무너져 내렸지만 실내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질 전문가는 "이 지역 지층은 석회암으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으로 균열로 인해 쉽게 함몰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metro Russia

Русские лисы входят в

애완견 울리는 시베리아 폭스

"귀여운 여우 한 마리 키우세요."

수입 동물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 미첼 길머슨은 요즘 러시아를 자주 찾는다. 노보시비르스크 세포유전 연구소 소란(SORAN)에서 개량한 '시베리아 폭스'를 수입해 미국에서 애완동물로 팔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도 '애완' 여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우가 애완동물로서 어떤 습성을 보이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다. 수년 전 생물학자들은 시베리아 폭스가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개량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종교배를 통해 아드레날린 분비량을 현격히 감소시킨 애완 여우는 일반 여우보다 길들이기 쉬울 뿐 아니라 특유의 강한 체취를 거의 풍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완 여우는 강아지와 비슷하지만 종긋 솟은 귀와 뾰족한 코 등 매력적인 생김새를 지니고 있어 인기가 높다. 소란의 유드밀라 트루트 박사는 "시베리아 폭스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거나 귀여운 울음소리로 주인의 관심을 끈다"며 "길들여진 여우는 주인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고 간단한 명령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베리아 폭스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트루트 박사는 "특히 미국인들이 애완 여우를 좋아한다"며 "미국에 건너간 여우만 해도 수십 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애완 여우의 분양 가격은 마리당 6950달러(약 76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완 여우의 희소성과 매력 덕분에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판매업자들은 전했다.

/드미트리 페레베르트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온몸 453개 주렁주렁 '피어싱맨'

두께 65㎝ 알통맨·1m 길이 손톱으로 피아노 연주 등 황당 기록 기네스북 등재

생식기에 피어싱한 남자, 키가 무려 2m가 넘는 개…

올 한 해도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황당한 기록들이 세계인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었다. 메트로 보고타가 정리한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황당 기네스 기록을 살펴본다.

◆인간 팔뚝 맞아? 이집트 출신의 보디빌더 무스타파 이스마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알통'을 가진 인간으로 등극했다. 그가 팔을 굽혀 힘을 줄 때 잴 둘레는 오른팔 63.5㎝, 왼팔 64.77㎝이며, 평상시 팔 둘레는 오른팔 60.96㎝, 왼팔 62.23㎝다. 알통 크기가 웬만한 여성 허리 두께만한 셈이다.

◆온몸이 털로 덮인 가족-예수 마누엘과 그의 가족들은 얼굴에 온몸에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털이 자라는 드문 유전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매일 면도하는 것도 힘들 정도. 하지만 마누엘 가족은 이 덕분에 기네스에 이름을 올리는 뜻밖의 행운을 누렸다.

◆사람인가 뱀인가-미국 텍사스에 사는 샤넬 테파어 혀 길이는 무려 9.7㎝에 달한다. 이는 평균의 2배이고 손바닥 크기와 비슷하다. 테파는 13세 때 올린 유튜브 영상 덕분에 가장 혀가 긴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생식기에도 피어싱-독일 출신 롤프 부흐홀츠는 전신에 453개의 피어싱을 했다. 그는 11세 때부터 피어싱을 수집해왔다. 입 주위에 94개, 눈썹에 25개, 코에 8개가 있지만 이가 전부가 아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생식기에 278개의 피어싱이 있다고 한다.

◆손톱 길이가 무려 1m-45세의 미국 뉴 가수 크리스 월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19년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의 손톱 길이는 무려 1m를 넘는다. 그러나 월튼은 집안일, 요리, 피아노 치기 등의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86세 기계체조 선수-20대 젊은이도 하기 힘든 평행봉 묘기를 선보인 86세 할머니 체조 선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동독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한 경력이 있는 요한나 할머니는 올해 최장수 선수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최근에는 고령 체조 경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대한 개-그레이트 데인 종종의 개 '제우스'가 세계 최장신 개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제우스는 발에서 어깨까지 1m20㎝에 달하고 뒷다리로 섰을 때 높이는 무려 2m2㎝다.

/정리=이국명 기자 kmlee@metroseoul.co.kr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백치 여친 때문에 검거된 마약왕
- 박물관서 되살아난 레닌·스탈린

KOSPI

Nikkei (일본)	
10322.98 (+92.62)	
Hang Seng (홍콩)	
22619.76 (+78.60)	
Shanghai (중국)	
2206.90 (-13.23)	
Dow Jones (미국)	
13114.59 (-24.49)	

EXCHANGE RATE

달러	1071.00
엔(100)	1250.56
유로	1421.00
위안	171.76

조인 "카톡, 봤지?" 하루새 30만 가입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타도를 목표로 이동통신 3사가 26일 선보인 문자·채팅 서비스 '조인'이 출시 하루 만에 다운로드 수 30만 명을 넘어섰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19만5000명이 조인을 내려받았다. 다른 이통사들은 정확한 다운로드 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3사를 통틀어 30만 명 이상이 조인을 내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MMS)와 채팅 사이의 빠른 메시지 전송과 대용량 파일 전송, 위치 공유, 연락처 전송 등 조인의 특징적인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의 다운로드 수가 많은 것은 내년 5월까지 앱을 내려받는 이용자에게 문자와 채팅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프로모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객은 프로모션 대상 요금제와 회선을 유지하면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박상훈기자

내년 '살얼음 경제' 성장률 3%

정부 9월보다 1%P 낮춰 전망…위기관리 중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렸다.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때 전망한 4%에서 1%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3.1%)나 국제통화기금(3.6%), 한국은행(3.2%)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 운용에서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제전망' 발표에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약한 회복에 따라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치고,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내년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 위험이 너무 크다"며 "3%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아래다"고 말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개선,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겠지만 주택시장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인식이다.

설비투자는 3.5%, 건설투자는 2%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고,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5%, 실업률은 1%포인트 떨어진 3.2%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경기의 완만한 회복,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겠지만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은 2.7%로 전망됐다.

또 내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4.3%, 4.6%에 그치면서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420억 달러 흑자)보다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300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봤다.

최 국장은 "내년 1분기를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크다"며 "저성장 가능성과 하방 위험, 대내외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설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55인치 UHD 공개 LG디스플레이 사내 모델이 CES 2013에서 별도 전시관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개할 55인치 UHD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내년 CES 2013에서 55인치 UHD제품을 시작해 (65·84인치) UHD 풀라인업 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다. /디지털기자

'빵집의 운명' 한달 연기

서비스업 관련 중기적합업종 지정 미뤄져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한 달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자 간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으로 서둘러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제과업과 관련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 또는 대기업의 일부라고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 특히 큰 상호를 지닌 기업이 중소 제과업을 도와주는 방면이 구체화하면 (대·중소기업 간) 상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과업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요식업의 경우 50만여 개에 이르는 업체가 단일안을 내지 못해 지정 여부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정 연기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출점 제한은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과업계도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적합업종 선정 역시 서로 협의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en@

국가 자산 8000조…10년새 2배 불어나

국가 자산이 8000조원을 넘어섰다. 10년 새 2.3배가 증가했다. 국가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토지 자산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65.2%였다. 10년 새 10.2%포인트 늘어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말 기준 국가 자산 통계'에 따르면 국가 자산은 8319조원으로 2010년 말보다 439조원(5.6%)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01년 말 3576조원의 2.3배 수준이다.

자산 형태별로는 토지(45.0%)와 유형 고정 자산(43.8%)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지 자산은 2010년보다 176조원 늘었고 유형 고정 자산은 183조원 증가해 자산별 국가 자산 증가액의 81.8%를 차지했다. 시도별 토지 자산은 서울이 1151조원으로 전체의 30.8%를 점했고 경기 1080조원(28.9%), 인천 211조원(5.6%) 등으로 수도권이 국가 전체 토지 자산의 65.2%에 해당했다. /김서설기자

신생기업·개인사업자 2년 생존율 50% 안돼

새로 생긴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2년 뒤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5년이 지나면 28.8%만 생존했다.

통계청은 27일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신생·소멸 상태를 파악한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신생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창업 1년 후 62.5%, 2년 후 49.1%로 2년이 지나면 겨우 절반만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년 후 41.2%, 4년 후 35.9%, 5년 후 30.2%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생존율은 1년 후 61.2%, 2년 후 47.9%, 3년 후 40.1%, 4년 후 34.8%, 5년 후 28.8%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반면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생존율은 1년 후 76.9%, 2년 후 62.9%, 3년 후 53.9%, 4년 후 49.1%, 5년 후 45.2%였다.

신생 기업의 산업별 5년 후 평균 생존율을 보면 부동산·임대업(48.1%)과 광공업(41.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상용기자 zen@

올해 최다 발급된 체크카드 하나SK카드 '메가캐시백2'

올해 나온 체크카드 중 하나SK카드의 '메가캐시백2'가 87만장으로 가장 많이 발급됐다. 체크카드는 올해 1억장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신한카드 'Charm 신한 체크카드'가 68만장, IBK기업은행 '참! 좋은 친구 체크카드'가 60만2천장으로 대박 상품에 속했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시백2'의 돌풍 요인은 체크카드로는 드물게 캐시백 서비스가 풍성하다는 점이다.

'외국계' 꼬리표 떼는 보험사들

우리아비바·하나HSBC 본사 지분 정리…업계 독자경영 행보에 관심

외국계 보험사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올 들어 수익성이 나빠진 데다 내년 시장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아비바그룹은 우리아비바생명의 지분 정리에 나섰고, HSBC도 한국 보험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독자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우리아비바생명과 하나HSBC생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자경영이 이뤄지면 계열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가계 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보험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어 두 보험사는 조직 개편과 실속형 상품 출시 등 점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은 전날 경영진과 지역단장, 전국 지점장 및 팀장 이상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희태 대표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본부 및 영업조직 개편, 사업 인프라 강화, 기업문화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 성장이 아닌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한 생존 경영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나HSBC생명은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 24일 출시한 무배당 갱신형 상품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 암·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필요한 보장을 담아 종신보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타깃으로 해 가격을 낮췄다.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이 10년일 때 40세 남자 기준 월 2만5000원, 여자는 1만40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됐다.

강상호 상품개발팀장은 "어려워진 경기 상황으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해 개발돼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 자산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현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인데스산맥서 자란 '씨 없는 청포도' 페루 청정 안데스 산맥에서 자란 씨 없는 햇 청포도를 27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이고 있다. 750g/1팩을 6900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목돈 드는 중년 성인병 집중보장

차티스손보 '큰병 이기는 보험Ⅳ' 2000만원 지급

중년을 무사히 넘기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의학적으로 40세부터 64세까지로 정의되는 중년에는 성인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암,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은 중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이같은 큰 병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속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중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성인병을 집중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어 화제다.

차티스손해보험의 '큰병이기는보험Ⅳ'는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암, 뇌출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년에 걱정되는 큰 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 설계가 가능하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지급해 가계에 큰 부담을 덜 수 있다(암의 경우 가입 후 91일부터 적용,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또 입원비, 상해·질병 의료실비, 방사선 치료비, 수술비 등 다양한 선택계약이 제공돼 필요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을 보장받는 기본계약에 암, 뇌출중, 급성심근경색까지 지원되는 선택계약 플랜 구성 시 월 보험료는 40세 남자의 경우 1만7160원, 여자는 2만5260원으로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80세까지 보장된다(단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보험금은 90세까지 보장).

보험설계사를 별도로 만날 필요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6050-101) 또는 차티스 손해보험의 홈페이지(www.chart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섭기자

중소제조업 60% "채용없다"

내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10곳 중 6곳은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2.7%(없음 54.8%, 유동적 7.9%)가 내년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적정인원을 유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망 불투명(18.4%), 경영악화·사업축소(9.5%)가 뒤를 이었다.

칠레 포도밭서 날아온 '새해축포'

오설록 '나만의 티' 대회 30대1 경쟁 성황리 끝나

아모레퍼시픽의 녹차 브랜드 오설록이 진행한 '제1회 오설록 메이크 유어 티(Make Your Tea)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예선을 거쳐 3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0팀이 참가한 본선대회에서는 총 5팀을 선발했다.

대상은 두 아이를 위한 건강음료 '베리 베리 얼그레이(Very Berry Earl grey)'를 선보인 주부 김한수씨가 차지했다. 얼그레이 베이스 시럽에 라즈베리·블루베리·블랙베리로 이뤄진 세 가지 특별한 베리 향을 더한 음료로 티하우스에서 메뉴로 출시될 예정이다. 상금은 500만원.

이 밖에 최우수상은 박주형·정지영, 우수상은 김민지·박원갑·박미선·하여울, 아이디어상은 김정주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오설록 제품과 티하우스 티숍 이용권을 증정했다.

스파클링 와인 '코디렐라 브뤼' 라벨에 해돋이 눈길

2013년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듯 와인 라벨 위로 황금빛 태양이 눈부시게 빛난다. 스파클링 와인 '코디렐라 브뤼'의 라벨은 안데스 산맥 위로 매일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유명하다. 희망 가득한 새해를 바라며 터트리기에 이상적인 와인으로 꼽힌다.

코디렐라 브뤼는 잘게 이가 돋보이는 옅은 골드 컬러가 눈부신 와인이다. 섬세한 버블이 터지면서 서서히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데 매혹적인 꽃향기와 신선함이 경쾌한 첫맛을 알리는 듯하다.

첫 느낌은 실크처럼 부드러우며 피노 누아 품종이 지닌 모든 과일의 향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듯 웅장하게 마무리된다. 고급 샴페인과 똑같이 병에서 2차 발효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해 더욱 정교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 칠레와인협회가 선정한 칠레 스파클링 와인 부문 금메달을 따냈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소비자가격은 4만원 선.

이 와인은 칠레 와인이지만 와인을 만든 토레스(Torres)는 원래 스페인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이 회사의 125주년 행사에 스페인의 국왕 후안 카를로스가 참석했을 정도로 스페인 와인업계에선 독보적이다.

토레스는 스페인 No.1 브랜드에 안주하지 않고 1979년 칠레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외국인 회사 최초로 칠레에 와이너리를 설립하며 첨단 와인 제조 기술을 도입한 것. 이를 통해 칠레 와인은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토레스가 '칠레 와인의 개척자'로 불리는 이유다.

토레스는 '착한 와이너리'로 명성이 높다. 와이너리로는 최초로 공정 무역 포도만을 사용해 와인을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공정 무역 인증을 받았다.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잡지인 드링크 비즈니스가 꼽은 '2010 올해의 그린 컴퍼니'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용순기자

와인 60병 드립니다

와인 수입업체 신동와인이 2013년 새해를 앞두고 메트로신문 독자들에게 신년에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인 '코디렐라 브뤼' 60병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킨텍스 '스폰지밥 해피월드' 손짓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가 신나는 체험 전시회로 후끈하다.

'스폰지밥의 해피월드 시즌4'(www.happyworld.co.kr·031-995-8179)가 '두근두근 콩콩 비키니시티 겨울여행'으로 돌아와 내년 2월 24일까지 계속된다. 추운 날씨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썰매와 낚시, 미니카, 쿠킹 체험 등 오감 만족의 다양한 코스가 준비돼 있다.

31일까지 해피월드 입장권으로 '킨텍스에서 즐기는 사진관 놀이'(ips.kintex.com·031-995-8156) 입장권을 40%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서울랜드 1월 1일 가면 더 신난다

서울랜드가 새해 첫날 세계의 광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전 11시에는 2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둘이 손잡고 림보' 게임이 시작된다. 가장 낮은 림보바를 통과한 가족에게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낮 12시에는 새해 소망을 풍선에 적어 하늘에 날리고, 낮 12시30분과 오후 5시에는 서울랜드 캐릭터 인형들이 풍물패로 변신해 신명 나는 풍악을 울린다.

이 밖에 3명이 한 팀을 이룬 가족 참가자들이 문제를 내고 맞추는 '우리 가족 한마음'(오후 2시30분), 단체 줄넘기 '패밀리가 떴다'(오후 4시30분) 등이 펼쳐진다. 서울랜드는 내년 3월 3일까지 2013년 뱀띠 해를 맞아 뱀띠 고객(본인 포함 총 2명)에게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을 준다.

크루치아니 '복을 부르는 니트팔찌'

이탈리아 브랜드 크루치아니가 새해 선물로 '복을 부르는 팔찌'를 제안했다.

행운을 선하고 싶은 친구나 동료에겐 '클로버 팔찌'가 제격이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7개가 연결된 니트 팔찌로 손목에 차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기쁨(복)을 상징하는 거미를 모티브로 한 '스파이더 브레이슬릿'은 7마리 거미와 베이드 컬러의 니트 밴드가 어우러져 화려한 느낌을 준다.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열쇠와 자물쇠 팔찌'를 하나씩 나눠 착용해도 좋다. 니트 소재라 부드러워 다른 액세서리와 함께 차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다.

/박지원기자

휘닉스파크 30일 '월드 보드 데이'

38개국 200곳에서 함께 열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가 30일 '월드 스노보드 데이 201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38개국 200여 곳에서 함께 펼쳐지는 스노보더들의 축제로 초보 스노보더부터 프로 선수까지 모두 참여한다.

행사 당일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국내외 유명 프로라이더들이 함께하는 스노보드 퍼포먼스와 데몬쇼, 스노보더들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지빙 페스티벌', 축제의 흥을 돋워줄 라이브 디제잉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밖에 리프트 40% 할인 행사는 물론 OX 퀴즈·권투 레이스·주사위 게임·눈 위에서 단체 줄넘기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나눠준다. 문의 www.pp.co.kr·1588-2828

/박지원기자

피부 속 하이알루론산을 활성화 시켜주는
유세린 하이알루론 필러

바르는 필러~ 지금 경험해보세요

HYALURON-FILLER
EYE TREATMENT

하이알루론 필러 아이 크림

세계 No.1 유세린이 대한민국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올리브영 아이크림 판매 1위, 겟잇뷰티 추천제품으로
출시 첫 해, 폭발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바르는 필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경험해보세요

지금 177개 올리브영 매장에서 특별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 보세요

Eucerin

DERMO SKIN SCIENCE THAT SHOWS
GERMAN TECHNOLOGY SINCE 1900

현대파텍스를 소개합니다

가끔 도로를 주행하다 이른바 '구형 그랜저' '엑셀'과 같은 자동차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문득 드는 생각은 '저 차 주인은 부품을 어디서 구할까'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올드카 오너들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파텍스'라는 곳에서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고 있었다.

현대파텍스는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의 AS용 차체 보디 부품을 적기에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을 위해 2005년 11월 서산지방산업 단지 6만 ㎡ 부지에 프레스-차체-도장-포장에 걸친 일관생산 공정을 구축했다.

충남 서산 지방산업단지 내 위치한 현대파텍스 공장 전경

'구형 그랜저' 단종됐어도 AS는 영원하다

현대기아차 단산차 전용 부품공장
이윤보다 고객만족 목표… 친환경 근무환경·복지 자랑

◆일류 자동차 메이커들의 상징

과거 현대와 기아차는 생산 중단된 소량 다품종의 AS용 프레스 부품을 소규모 차체조립업체로 운반, 차체로 조립한 후 다시 도장전문업체로 이송해서 도장 및 포장을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부품을 구입하는 데 부품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에 도달한 선진 일류 메이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20년 전부터 생산 중단된 전용 부품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도요토미-키코라는 합작회사에서, 미쓰비시는 미쓰비시 협동조합에 EW1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소량 다품종의 AS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가의 전문 설비와 거대한 공장, 그룹의 우수한 인력을 직접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대파텍스의 설립 배경이 이윤 추구가 아닌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이었기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양산 설비로 생산 중단 부품을 1개씩 만들 경우 부품 1장당 고가의 가공비가 들어가지만 일관생산공정의 현대파텍스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개선된 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전산 시스템 연계

현재 국내에만 1340만여 대, 전 세계를 합치면 약 2500만 대의 현대기아차가 운행되고 있다. 현대파텍스는 이들 중 단산된 차종의 보디 제품, 예를 들어 도어·후드·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펜더 등의 프레스 가공부품 및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파텍스 직원이 AS에 사용할 자동차 도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현대파텍스 공장 내부의 모습 /현대파텍스 제공

20만5000㎡의 부지와 5만5800㎡의 공장 건물에 3개의 5단 프레스라인과 자동차체 조립라인, 최신 전착도장 설비 및 부식을 방지하는 압축 포장 설비를 갖춘 도-포장라인, 부품생산용 금형보관장, 조립치구장, 금형가공기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프레스 가공부터 차체 조립, 전착 도장, 포장 공정까지 일관생산체제로 낭비 요소 없이 신속하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전산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AS 고객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계획 생산을 하고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가장 오래된 금형은 20년 전 생산한 구형 프라이드이며 아반떼XD, 리오, 쏘렌토, 쏘나타, 에쿠스 등 71개 차종의 약 4500벌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다.

◆안전제일과 자기계발 지원

현대파텍스는 이를 위해 모든 설비에 안전 우선장치를 구비하고 공장 설비 레이아웃을 친환경적으로 구성,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근로자 전용 복지관과 체력단련실, 다목적 구기장 등 직원 복지시설에도 정성을 들였다.

또 교육과 병행하는 근로로 직원의 근무 효율을 높이고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주역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많은 국내외 기업은 튼튼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신차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쉽게 고장나지 않는 탓에 AS 부품사업의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현대파텍스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에게 많이 팔아야 하는 기본적인 상행위 때문에 공장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고객만족을 위해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20~30년 넘게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중단 차량 부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지속적으로 부품을 생산했기 때문이었다.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은 자동차를 재구입할 때 다시 해당 브랜드를 찾아 오히려 수익이 더 오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훈훈한' 현대파텍스 이웃돕기 솔선수범

현대파텍스는 대기업 계열사이지만 지역 기관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해마다 인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최근 현대파텍스 직원들이 지역내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가 집 청소와 수리를 했고 가구당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전달해 오고 있다.

"올레마켓에서 지금바로 만나보세요!"

※ 매달, 매주, 매일 최신게임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올레마켓은 KT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한가득! 최신게임과 이벤트

18
metrospecial
아듀! 2012
www.metroseoul.co.kr
'국민 첫사랑녀' 하면 수지
'멀티 활약남' 하면 바로 김수현
아듀! 2012
metrospecial
19
싸이
수지
김수현

1억 관객 시대 열고 현대사 조명 줄잇고

올해의 한국영화계 명암 5대 뉴스로 되돌아보니…

2012년 한국 영화계는 관객 1억 명 시대 개막 등 기분 좋은 소식이 그 어느 해보다 넘쳐흘렀다. 반면 극장망까지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들의 독과점 형태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등 그림자도 진했다. 5대 뉴스로 올 한 해 한국 영화계의 명암을 되짚어본다.

도둑들 · 김기덕 감독 · 이명세 감독

▶ 관객 1억 명 시대 개막 =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한국 영화를 관람한 2012년 전체 관객수는 무려 1억1227만129명에 이른다. TV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영화 관람이 유일한 오락거리였던 1960년대 1억 명을 돌파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집계가 아니므로 사상 최초나 다름없다.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1000만 영화가 두 편이나 탄생하고 중박에 해당되는 300만~400만 영화도 예년에 비해 월등 늘어난 덕분이다. 곽경택 감독은 "2000년대 중반 혹독한 구조조정기를 거친 영화인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 김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칸·베를린 등 세계 주요 3대 영화제에서 주요 부문을 모두 거머쥐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이전과 달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파격적인 입담을 선보이는 등 관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최종 관객수는 59만 명으로 '나쁜 남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최고 흥행 기록(70만 명)을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다. 흥행에 대한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 김 감독은 "1000만 기록을 위해 스크린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바로 도둑들"이라며 누군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 이명세 감독의 '미스터 K' 도중하차 등 감독들의 위기 = 영상 미학의 달인 이명세 감독과 '박하벨'의 박신우 감독은 제작사 및 투자·배급사와의 갈등으로 '미스터 K'와 '동창생'에서 각각 도중하차했고, 임순례 감독 역시 제작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남쪽으로 튀어'의 촬영장을 한때 이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유명 배우는 "프로덕션 과정을 원활하게 주도하지 못한 감독의 탓도 있지만 감독을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의 잘못된 사고방식 탓도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 대선의 해 맞이 '남영동 1985' '26년' '두 개의 문' 등 민감한 현대사 다룬 영화들 봇물 = 한국 정치사의 민감하면서도 우울했던 과거를 그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대거 개봉됐다. 올해 초 '부러진 화살'로 사법부를 비판한 데 이어 '남영동'에서 전두환 정부 시절의 고문 만행을 고발한 정지영 감독은 "이 영화가 연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는 "거창해 보이는 메시지로 상업적인 속내를 포장한 사례"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 극중 대사 유행어로 인기 = "살아있네!"('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어떡하지 너" "납득이 안 돼, 납득이"('건축학개론') 등이 KBS2 '개그콘서트'의 유행어 이상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2001년작 '친구'의 "고마해라, 많이 무었다 아이가" "니가 가라 하와이" 이후로 영화 속 대사가 유행처럼 대중의 입에서 널리 회자되기는 처음이다. 한 형화 제작자는 "그동안 한국 영화는 인상적인 다이얼로그 혹은 명대사가 많지 않았다"며 "시나리오 단계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작가와 연출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자식에게 부모님 치매보다 무서운 건 간병비!

차티스 '명품치매보험'은 60세 남자 기준 월 12,280원으로 손해보험업계 최초 치매간병비 5천만원 보장!

직장인 김서영(36세)씨는 치매라면 치를 떤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 때문이나 불과 5년 전만해도 건강하셨던 할아버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영씨와 서영씨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할아버지의 치매간병비다. 네 가족의 생활비를 빼고 나면 서영씨 월급만으로 치매간병비를 마주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72%는 가족이 간병하며 치매 평균 간병시기는 8년으로 간병가족의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 2011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21만8천명(2009년)으로 7년간 무려 4.9배 증가했다. 2030년에는 치매환자수가 100만명이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듯 치매 노인 비율에 비례해 치매간병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가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티스 손해보험의 '명품치매보험'은 치매 간병비를 더욱 강화하여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최근 몇 년간 혈압약을 먹고 있는 어머니 씨(60)는 보험 하나 들어 놓고 싶어도 혈압이 높아 보험가입이 거절당할까 봐 포기하고 있었다. 이처럼 당뇨나 고혈압으로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명품치매보험'은 평소 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가입상담이 가능해 이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평소 완쟁 수치 이하로 건강관리만 잘 했다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심사 후 가입이 가능하다. 치매 보장 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및 상해의료실비 등 다양한 선택계약의 보험설계가 가능하다. 50~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부담 없는 친절상담

1600-3922

보장내역			보상금액	법률(지급사유) 및 사항	월보험료(60세 기준, 단위:원) 남자	여자
기본계약	Active보험금		5백만원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6,270원	
	지급범위	골절	15만원 ~ 2백만원			
		화상	50만원 ~ 150만원			
		장기 및 뇌손상	90만원			
선택계약	치매 간병비Ⅱ (중증치매)		5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6,010원	14,270원
	부가서비스 (간병 도우미)		1회 3일 등	치매환자로 가입자가 중증치매 확진 받아 재택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회 3일을 연3회 지원	-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0대 노후 의료비 부담, 갈수록 커져!

1인당 평생 의료비 8천만원, 노후에 그 절반이 집중적으로 지출! 평소 다쳐서 드는 병원비는 물론 치매까지 보장하는 '명품부모님보험'

유례없는 경제침체기를 맞아 아파도 병원비 무서워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실버세대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저곳 다쳐서 병원 갈 일이 많은 노년에 병원 가기를 미루다 더 큰 돈을 지불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생 7천만~8천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그 절반을 65세 이후인 노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월평균 24만 7천 146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노년에 드는 만만찮은 의료비용은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기엔 더욱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쳐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노년일수록 철저한 건강대비가 필요하다.

차티스 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은 평소에 다쳐서 병원비 부담이 많은 노년에 선택계약으로 상해 입원의료실비와 상해통원의료실비를 보장한다. 다쳐서 드는 병원비를 그대로다 보장 (입원시 10%, 통원시 1~2만원, 약제비 8천원 본인부담)하기 때문에 노년에 유용하다. 또한 요즘 노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도 보장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부모님보험'은 60세 남자 기준 월 34,170원의 보험료로 치매 진단 즉시 치매간병비 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중증치매로 확진 후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평소 다쳐서 드는 병원비까지 보장해 노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보험이다.

또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에 대해서도 기본으로 보장하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현명한 자녀 부모님을 위한 실속 있는 효도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75세 부모님도 가입가능

1577-6427

보장내역			보장금액	법률(지급사유) 및 사항	월보험료(60세 기준, 단위:원) 남자	여자
기본계약	Active보험금		1백만원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12,540원	
	지급범위	골절	3만원 ~ 4백만원			
		화상	1백만원 ~ 3백만원			
		장기 및 뇌손상	18만원			
선택계약	상해입원 의료실비		5천만원 한도	본인부담금의 90% 지급, 기본공제금액 ...	5,420원	4,330원
	상해통원 의료실비(외래)		건당 25만원 한도	본인부담금에서 지급, 상해로 통원 치료시 ...	2,410원	2,800원
	상해통원 의료실비(처방조제)		건당 5만원 한도			
	치매 간병비Ⅰ		3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3,600원	8,560원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차티스

큰병 이기는 보험Ⅳ

(선택계약) 암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기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기본계약)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1577-6428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암 진단비Ⅱ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69세	6,270		30세	2,260	7,030	1,200	520	750	270	
			40세	6,780	17,570	2,730	890	1,380	530	
			50세	17,140	21,390	8,620	6,410	2,260	890	

1. 가입연령: 15~65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상이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80세까지(일부 담보는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요계 지존'도 돌아온다

새해 톱가수 컴백 러시 속 조용필·이승철 앨범 출시

연초 톱 가수들의 컴백 러시 속에 '지존'들도 복귀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2013년 가요팬들을 흥분시킬 전망이다.

'가왕' 조용필은 내년 봄 정규 19집을 출시할 계획이다. 2003년 발표한 18집 '오버 더 레인보우' 이후 10년 만이다. 2007년 19집 출시 계획이 무산되면서 최근 5년간 매년 새 음반 출시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이승철을 비롯한 후배 가수들은 가요계에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년 앨범을 내주길 바라왔지만, 조용필은 급변한 음반 시장 등 여러 환경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전국투어 '바람의 노래'를 진행한 이후 올해는 휴식을 취해온 만큼 내년에는 보다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음반 출시에 맞춰서 데뷔 4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투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도 비슷한 시기에 정규앨범을 출시한다. 그는 최근 막을 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내년 3월이나 4월쯤 정규 음반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손톱이 빠져서'를 타이틀곡으로 한 정규 10집 '뮤토피아'를 발표한 이후 4년 만이다. 매 앨범마다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시도와 세계 정상급 스태프를 참여시켜 퀄리티를 높여온 만큼 새 앨범도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구하라·용준형 결별이라뇨?

고양이 선물로 소문 일축

결별설에 시달리던 카라의 구하라와 비스트의 용준형이 고양이 선물 인증샷으로 소문을 일축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하라가 용준형에게 선물한 고양이를 판매했다는 한 펫숍 사장의 SNS를 캡처한 사진이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SNS에는 "카라 구하라씨가 비스트 용준형씨 생일 선물로 예약한 냥이 폴드(스코티시 폴드) 내가 너네를 얼마나 어렵게 구했니 ㅎㅎ 최고의 셀러리티다 진짜로 하라씨 이따 봐요"라고 적혀 있다.

사진에는 새끼 고양이 모습도 담겼고, 구하라가 고양이를 안고 펫숍 사장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찍은 사진도 온라인에 게재됐다.

지난해 6월 교제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동안 불화와 결별 소식이 돌기도 했다. 구하라의 소속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 인터넷에 퍼져 당황스럽지만 예상치 않은 사진으로 그동안 나돌던 억측은 씻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신지·유병재 "우리 헤어졌어요"

1년 7개월여만에 결별… 부상 등이 원인인 듯

코요태 신지와 프로농구 선수 유병재가 결별했다.

신지의 소속사는 "두 사람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친구로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9월 교제 사실이 알려진 후 공개 커플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올해 9월 한 차례 결별설이 나돌며 위기를 맞았다. 당시 결별 소문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결별설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KCC 소속으로 활약하던 유병재가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임의 탈퇴로 코트를 떠나는 아픔을 겪은 것도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해진다.

신지는 최근까지 코요태 멤버들과 1990년대 가수들의 합동 공연인 '청춘나이트' 무대에 오르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공연 소식을 전하는 등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결별의 아픔을 이기고 있다. 신지는

내년 2월 코요태 새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특급대우 받고 中 콘서트

동방신기(사진)와 에프엑스가 특급 대우를 받고 중국 신년 콘서트에 출연했다.

22일 쓰촨성 청두시 청두체육관에서 열린 '쓰촨 위성 2013 신년 콘서트'에 이들은 주최 측이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등 VIP 대우를 받았다. 31일 중국 전역에 방송되며, 중국인 가수 장리인도 함께 출연했다.

올해 빛낸 코미디언 1위

개그맨 유재석이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2년을 빛낸 코미디언·개그맨'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15~30일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유재석이 가장 많은 38.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준현·김병만·이수근이 2~4위를 차지했다.

'대풍수' 우왕역할 맡아

배우 이민호가 SBS 수목극 '대풍수'에 우왕 역으로 합류했다.

짐권 초 윤주와 여석에 빠져 민심을 잃지만 '웃난' 이성계(지진희)와 함께 여인임을 꿈이네는 인물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알렸다. 이민호는 앞서 MBC '해를 품은 달'의 양명대군 역역을 연기하며 눈길을 모은 바 있다.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레미제라블	35.85%
2	타워	26.98%
3	반창꼬	8.20%
4	호빗: 뜻밖의 여정	5.62%
5	잘 헤지어: 상비밀 나무생의 비밀	4.75%

자료제공: movie.yes24.com (12월 27일 14시 집계 기준)

'강호동 새 예능' 용감한 형제 합류 유력

방송인 강호동이 출연하는 KBS 새 예능 프로그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강호동과 호흡을 맞출 MC진에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에 이어 합류를 결정한 데 이어 용감한형제·정재형의 출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폰은에 작가와 KBS2 '안녕하세요'의 이예지 PD가 의기투합한 이 프로그램 콘셉트는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밝혀졌다. 강호동이 이미 '무릎팍도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은 기존과 차별화된 토크쇼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첫 녹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방영 시기는 1월 중순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폐지가 결정된 '승승장구'가 방영되던 화요일을 비롯해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 시간대 중에서 편성이 진행 중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새 예능은 강호동의 실질적인 복귀작"이라면서 "기존 그가 했던 예능과 차별화된 포맷으로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기자 (abus27@

'놀러와' 후속에 '토크클럽 배우들'

송선미·김정난 등 물망

국민 MC가 8년간 이끌었던 빈자리를 배우들이 채우게 됐다.

MBC는 "유재석·김원희가 진행하던 '공감 토크쇼-놀러와'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토크클럽 배우들'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우들이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14일 첫 방송된다. 출연진에는 송선미·김정난·고은아 등 여배우 다섯 명 정도가 물망에 오른 상태이며, 다음달 6일께 녹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놀러와'의 안방마님이었던 김원희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에 마음을 아쉽게라도 전한다"면서 유재석·슈퍼주니어 은혁·박재범·김나영 등과 함께한 사진을 올려 눈길을 모았다. /권보람기자 kwon@

現 한의사 송진호 소장이 개발한 "세미닥터"

당뇨! 98,000원이면 100% 완치?!

만성 고혈압(169mmHg)이 단 7일만에 정상(89mmHg)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미닥터를 복용하기 7일전에는 169mmHg였던 혈압이 7일만에 89mmHg로 떨어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당뇨, 고혈압!! 7일 무료체험!!

26년동안 노력끝에 개발했습니다!!

혈압약과 같이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보세요!!

現 중원한의원 원장 한의사 송진호
원광대학교 한의과 졸업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당뇨병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모든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에 기재된 누에, 조선시대판 비아그라가 따로 없네!!

각종 주요언론에 소개된 누에의 효능효과

- 누에고치 추출 펩타이드 당뇨 파킨스 혐에 효과 (– 이데일리경제 2010 10 29)
- 누에분말 혈당조절기능식품 인정받아 (– 연합뉴스 2009 09 08)
- 누에분말서 혈당강화 물질생산 (– 매일경제 2000 12 04)
- 누에분말 당뇨병 치료제로 부상 (– 연합뉴스 1998 06 16)
- 혈당강하제로 누에분말 일본에 수출 (– 연합뉴스 1998 05 10)
- 누에 번데기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 (– 문화일보 2004 10 14)
- 누에 번데기 지방산 고지혈 피부보습에 탁월 (– 연합뉴스 2004 10 10)
- 수컷 누에 번데기서 발기촉진물질 추출 (– 국민일보 2004 06 22)
- 누에 수컷이 천연비아그라 (– 경향신문 2004 06 22)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닥터를 먹는 순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7일만에
수치가 내려가는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구요

송진호 한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못 잊을거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이게 정말 효도구나 싶었습니다!

누에는 21세기 불로장생식품!!
국내외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
병원도 못고친 당뇨 누에로 싹!!

출시기념 50% 할인

송진호 세미닥터 이런분께 권합니다

- 세미닥터는 당뇨병에 매우 뛰어나다!
- 혈당강하에 특효다!
- 고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 동맥경화에 탁월하다!
- 정력, 발기력을 향상시킨다!

당뇨, 고혈압 7일 무료체험 실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7일동안 무료로 드셔보시고 구매결정 하세요!!

무료체험신청 080-010-4545

뮤지컬 '레베카'

뮤지컬 '클레오파트라'

레베카·위키드… 가슴벅찬 무대들 뮤지컬팬 좋겠네

2013 공연계 대작 창작극 풍성 · 쓸만한 작품 뭐가있나

내년 공연계는 해외에서 인기를 끈 대작과 볼거리가 풍성한 창작극을 초연해 뮤지컬 팬들을 즐겁게 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스릴러 뮤지컬 '레베카'(1월 12일~3월 31일·LG아트센터)가 포문을 연다.

히치콕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대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이 원작으로, '엘리자벳' '모차르트!'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가 제작한 기대작이다. 유준상·류정한·오만석·옥주현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프랑스 뮤지컬 '클레오파트라'(7월 23일~오픈런·대학로 뮤지컬센터)도 초연된다. 이집트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삶과 로마의 두 영웅 시저·안토니우스와의 사랑을 그렸다.

'지킬 앤 하이드'의 작곡가인 프랭크 와일드혼의 작품 '스칼렛 핌퍼넬'(7월 2일~9월 8일·LG아트센터),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화한 '라이스'를 뮤지컬(7월·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던 '보니 앤 클라이드'(9월·충무아트홀)도 기대작이다.

올해 뮤지컬 국내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위키드'의 한국어 초연(12월 말·샤롯데시어터)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인 '살짜기 옵서예'(2월 16일~3월 31일·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의 17년 만의 재공연과 가수 고 김광석의 노래로 엮은 '그날들'(4~6월·뮤지컬센터 대극장)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를 품은 달'(6월 말·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왕의 남자'(6월 13일~7월 17일·유니버설아트센터), '써니'(내년 하반기·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10월 초·우리금융아트홀) 등 인기 드라마나 영화가 원작인 작품들도 뮤지컬로 첫선을 보인다.

/박찬숙기자 ssk0427@metroseoul.co.kr

극단 서울 '어린왕자' 공연 내달 10일부터

18년간 어린이 영어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제작해온 극단 서울이 35회 정기공연으로 '어린왕자'(다음달 10~13일·꿈의 숲 아트센터)를 무대에 올린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명작소설 '어린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지구의 사막에 불시착한 뒤 펼쳐지는 여행담을 그렸다. 두려움이 많은 조종사를 만나 친구가 되어주고, 여우를 만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어린이 영어 뮤지컬은 감성적인 무대와 교육적인 영어의 만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문의 02)747-0035

/김민준기자 mjkim@

또디 by 정연식 <563>동서2

아무도 몰랐는데 올해 봄 쯤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나봐요 돌아가시기 며칠전까지도 원고 마감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굳이 안 가봐도 되지만 왠지 형한테는 알려야 할것 같아서요

스르르

툭!

거짓말처럼 그는 영정사진으로 남아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죽음과 싸우던 마지막 그 몇개월 그는 내게서 화해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좋겠구려, 안형 이제! 원고료 떼일 걱정 안해도 되고

욕하기 좋아하는 인터넷 게시판 앞에서 속상할 필요도 없으니 마음 편해서 좋겠구려

하지만 나는 뭐란 말이오

받기만 할뿐 줄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는, 이토록 속이 좁아터진 나는 뭐란 말이오

진정 용서 받아야하는 자는 욕되게 살아남은 나였던 것을

곁의 누군가를 몹시 화나게 한 적 있습니까? 그럼 지금 모두 사과하세요

누군가로 부터의 진심어린 사과를 물리친 적 있습니까? 그럼 지금 모두 용서하세요

남은 이 한해가 다 가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wind8686@naver.com

2012년 출판계의 특징을 대변하는 저자들. 왼쪽부터 혜민 스님·김난도·법륜 스님·안철수

각박한 세상… 책, 힐링캠프가 되다

2012년 출판계 이슈 결산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한 해였다. 어느 올해 서점가를 휩쓴 베스트셀러의 면모를 보면 그랬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상처를 보듬는 에세이가 판매가 급증했다.

교보문고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연간 도서 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에세이·시 부문 판매 권수가 전년 대비 16.9% 뛰어올랐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올해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했고,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가 각각 4위와 6위에 올랐다. 법륜 스님의 '답답하면 물어라'는 11위에 올랐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압도적인 판매를 기록한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올해 내내 지속됐던 '힐링'의 흐름을 대표한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예스24와 인터파크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물론 '2012년 올해의 책'과 '2012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작년 난도샘 이어 '혜민 에세이열풍'
대선 관심 속 '안철수의 생각' 품귀도

혜민 스님은 "각박한 삶 속에서도 스스로 성찰하고 위안을 찾는 '힐링'이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회 환경이 '힐링'을 원했다는 의미다. 또 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나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힐링', '위로', 등을 화두로 한 에세이가 대세를 이뤘다"며 "자신을 성찰하고 상처를 치유해 새로운 힘을 찾으려는 독자가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힐링'은 지난해 출판계의 키워드였던 '청춘'의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압도적으로 종합 1위에 오르며 청춘들을 위로했다. 올해는 청춘들의 위로 메시지가 확대돼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 됐다.

또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쳤고,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선도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만큼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에 대한 갈망이 출판계에도 녹아들었다.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에 가장 눈에 띄었던 '안철수의 생각'은 초판이 하루 만에 소진되며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대권 진출에 대한 이슈가 큰 시점에서 게릴라성으로 출간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됐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스티브 잡스'의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최단 시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또 강연회의 활발한 콘텐츠화도 주요 흐름이었다. 힐링 에세이와 멘토의 영향이 커지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강연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마이클 샌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등 책와 석학들이 진행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해외석학·멘토형 저자들은 강연바람
불황·반값 경쟁에 인터넷 서점 휘청

김난도, 김정운 등 청춘들의 멘토로서 신뢰받고 있는 저자의 책은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최재천, 최인철 교수는 전문 분야를 다룬 TV 특강을 통해서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다. 또 혜민 스님, 법륜 스님 등 청춘들을 위한 강연콘서트가 인기를 끌면서 독자들과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강연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판계에서는 반값 할인을 내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던 인터넷 오픈마켓들로 인해 인터넷서점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도서 유통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완전도서정가제와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학철기자 kimhanul@metroseoul.co.kr

올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책들. 위부터 차례로 1~10위다.
/김학철기자·촬영협조=교보문고 광화문점

'크레마 터치' '그레이' 덕분에… 전자책 대중화 문턱 넘다

지난 5월 구글북스가 국내 시장에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선 8월에는 한국형 킨들이라는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터치'가 출시되는 등 올해 국내 전자책 시장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의 경우 국내에서 종이책을 넘어서는 전자책 판매량을 보이면서 전자책 대중화의 원년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예스24의 전자책 판매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84% 성장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레이' 시리즈로 대표되는 베스트셀러의 종가가 한몫을 했다. 예스24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 1위에 '그레이 1권'이 오른 데 이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심연',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해방' 등 '그레이' 시리즈가 2위와 3위, 5위와 7위를 휩쓸었다.

또 종이책과의 동시 출간 신간의 확대 등을 통한 콘텐츠 확보 그리고 '크레마 터치' 등 전자책 단말기의 확대도 전자책 시장 급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예스24 관계자는 "이슈 도서들을 즉각 구입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크레마 터치' 등의 전자책 단말기가 즉각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독자들을 전자책 시장으로 끌어모으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책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교보문고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교보문고의 전자책 판매 현황을 보면 영화화로 인해 인기를 끌었던 박범신의 '은교'가 종합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섹스이재벌견빗개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 등 성과 성애를 다룬 책들이 주목받았다.

전자책 시장에서 '그레이' 시리즈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했다. 사진은 한국형 킨들로 불리는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터치'를 사용하는 모습

교보문고 관계자는 "'그레이' 시리즈를 비롯해 19금 도서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한정적인 콘텐츠에 독자들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학철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메니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3 What's this? 사물에 대해 말하기(단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표드립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ose notebook is this? Is it yours?
B Yes, it's mine. 당신 것은 어디 있나요?
A Here it is. OK, now, let's begin.
B Good. But where's Mr. Green? 이것이 그의 서류 가방인가요?
A Yes, it is. Oh, 그분은 저기 계세요.

정답 Where is yours? / Is this his briefcase? / There he is.

생생영어팁

▶ 헷갈리기 쉬운 영어

Whose VS. Who's, There's VS. Theirs

심지어 원어민들조차도 헷갈려하는 이 두 단어들은 분명히 다른 쓰임과 뜻을 갖습니다. Whose는 '누구의 것'이라고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고요, 이와 발음이 거의 같은 Who's는 Who is를 줄여서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뜻은 '누가 ~인가요?'예요.

ex. Whose bag is this? 이건 누구의 가방인가요?
Who's that over there?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저기에 ~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There's는 There is를 줄여서 쓴 것이고 이와 발음이 같은 Theirs는 '그들의 것'이란 뜻이에요. 역시 스펠링과 뜻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ex. There's John by the tree. 저기 나무 옆에 존이 있어요.
Theirs is over there. 그들의 것이 저쪽에 있어요.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Ms. Yasuda's _______ in managing difficult projects has earned her respect from colleagues and company officials.
(A) succeed (B) success
(C) succeeds (D) successful

02 Warehouse employees must _______ the safety guidelines as outlined in the company manual.
(A) take (B) follow
(C) lead (D) carry

01. 미스터 A는 어려운 프로젝트 관리에 성공하면서 동료들과 회사 간부들의 존경을 받게 됐다.
해설 정의 주어 자리이며 소유격의 수식을 받으므로 명사 success를 쓴다.
어휘 manage 통 관리하다, 운영하다 colleague 명 동료 official 명 관리, 고위직 succeed 통 성공하다 success 명 성공 successful 형 성공적인
정답 (B) success

02. 창고 직원들은 회사 안내서에 기술된 대로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해설 회사 안내서에 명시된 '안전 지침을 준수하다'라는 의미이므로 (B) follow를 쓴다.
어휘 warehouse 명 (물류) 창고 safety guideline 안전 지침 outline 통 설명하다, 개괄하다 manual 명 설명서, 안내서 carry 통 운반하다
정답 (B) follow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자음 발음 연습

• [s] vs. [θ]

[s]는 혀를 윗니 뒤의 잇몸에 대어 스치듯 나는 소리이며, [θ]는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대고 바람을 강하게 내쉬면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use 사용 – youth 젊음 / sink 가라앉다 – think 생각하다
sick 아픈 – thick 두꺼운 / sank 가라앉았다 – thank 감사하다

Ex. Sam went to the theme park in Seattle last month.
Sam은 지난달 시애틀에 있는 테마 공원에 갔습니다.

• [ɪ] vs. [i:]

[ɪ]는 '이'와 '에'의 중간 발음처럼 짧게 발음하는 소리이며, [i:]는 '이'를 길게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sit 앉다 – seat 좌석 / fill 채우다 – feel 느끼다
bit 조금 – beat 이기다 / live 살다 – leave 떠나다

Ex. Imagine that you'll leave here soon and live there.

박지성 빠진 QPR '꼴찌' 추락
기성용 풀타임 스완지 0-0

기성용(23·사진)이 풀타임 활약한 스완지시티가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완지시티는 27일 오전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레딩과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기성용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9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전담 키커로 나서 프리킥과 코너킥을 책임졌다.

박지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는 후반 4분 골키퍼 로버트 그린의 뼈아픈 자책골로 웨스트 브로미치에 1-2로 패해 또다시 리그 꼴찌로 추락했다. /코엔윤기자

윤희상·손아섭 WBC 합류

윤희상 손아섭

김진우·추신수 대체 자원… 대표팀 2월 대만 전지훈련

투수 윤희상(27·SK)과 외야수 손아섭(24·롯데)이 내년 3월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투수 김진우(29·KIA)와 외야수 추신수(30·신시내티 레즈)를 대신할 선수로 윤희상과 손아섭을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김진우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 인대 통증을 호소해 공을 던지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는 처지다. 추신수는 이달 클리블랜드에서 신시내티로 팀을 옮긴 뒤 소속팀 적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윤희상은 올 시즌 SK를 6년 연속 한국시리즈로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긴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지난해 처음 이름을 알린 그는 올해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키며 10승9패, 방어율 3.36을 기록했다.

손아섭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한 교타자로 올해 132경기에 출장해 타율 0.314(3위), 안타 158개(1위)에 올랐다. 약점으로 지적되던 수비도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달 발표한 대표팀 예비 명단에서 6명의 선수가 교체된 대표팀은 내년 2월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이범호·양현종 연봉 삭감 '쓴맛'
손승락 2억6천 재계약

KIA의 중심 타자 이범호와 왼손 투수 양현종이 나란히 연봉 삭감의 쓴맛을 봤다.

KIA 구단은 27일 "이범호와는 올해보다 6000만원 깎인 연봉 4억3500만원에, 양현종과는 5000만원 삭감된 9000만원에 내년 연봉 재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범호는 양쪽 다리 근육통 탓에 올 시즌 42경기 출전에 그쳤고 홈런 2개, 19타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양현종 역시 시즌 내내 제구 난조로 고전하며 28경기에서 1승2패 2홀드, 방어율 5.05에 머물렀다. 시즌 중 입단해 KIA 마운드 뒷문에 힘을 보탠 최향남은 7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범호

한편 넥센 마무리 투수 손승락은 8000만원(44.4%) 오른 2억6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는 올해 53경기에 나와 3승2패 33세이브, 방어율 2.15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삼성화재 군부대에 바둑 전파
육군 제1보병사단 첫 후원

삼성화재가 군부대에 바둑을 보급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화재는 26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군부대 바둑 보급' 후원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국내 바둑 저변을 확대하고 바둑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바둑판 세트와 바둑 교재 등은 201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대회에서 한국 기사가 승리할 때마다 1집당 1만원, 승 시 30만원씩 적립한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민준기자

오른쪽 왼쪽 삼성화재 송무가 하창호 1사단장에게 바둑용품 수여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WOW
WOW!
놀랍다!
14개 대학에서 만나는 특별한 비전
내일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힘이 되는 대전·충청지역
대학으로 오십시오
14가지의 선택! 14개의 힘! 대전 • 충청지역 대학들을 만나십시오
대덕대학교
DAEDUK COLLEGE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원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교
공주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AJOU MOTOR COLLEGE
천안연암대학
혜전대학교
HYEJEON COLLEGE